



“ 도시의 문화재생은 판타지인가 ”

“ 성장과 쇠퇴라는 필연적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는 도시는 재생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된다. ”
_ 패트릭 게데스 (Padrick Geddes)

“ 도시는 인류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. 도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인간의 채취로 이루어져 있다. ”
_ 에드워드 글레이저 (Edward Glaeser)

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음을 입증해 왔다. 관계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던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동네, 마을, 도시 등 그들의 특성이 배어 있는 공간을 이뤘다. 이에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향하는 공간보다는, 그 속의 '인간 내음'에 집중했다. 분명 공동체는 꿈틀거리고 특유의 향기를 지녔다. 그럼에도 문화적 도시재생을 판타지로 볼 것인가.



류설아 | 지은이

경기도 지역 언론의 문화부 기자. 오랫동안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복원에 주목했다. 제47회 한국기자상, 제10회 경기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. 저서로는 <경기도 문화원에서 노을자>, <이제는 지역이다> 등이 있다. 앞으로도 '한국형 에코뮤지엄' 조성 과정 등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꾸준히 기록할 계획이다.

경기지역 문화재생 유형분석

경기문화재단 문화재생팀에서 진행한 <2016년도 지역맞춤형 문화재생 모델 개발> 사업의 일환으로, 경기도형 문화재생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을 위해 경기지역의 문화재생 유형분석워크숍과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.

행복한 마을혁명

마을만들기부터 에코뮤지엄까지